

## 아름다운 동행

정 명 순

모현 가정 호스피스

2009년 11월 24일 이른 새벽,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제외하고는 저와 가장 자주 보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김수경(분도) 형제님이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한줌의 재가 된 형제님을 제 눈으로 보았음에도 형제님이 어딘가에 살아서 저에게 전화를 해올 것만 같습니다. 형제님은 지난 몇 년간 저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왔던 친구였으니까요. 우리나라로 57세, 아직은 할 일이 많을 조금은 아까운 나이, 병명을 알고 머지않은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시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세상보다 하느님께서 더 필요하셨는지 조금 서둘러 불러 가셨습니다.

8년 전, 날씨가 조금 쌀쌀하고 스산한 바람에 낙엽이 뒹굴던 어느 늦은 가을, 돌아가신 분도형제님과 형제님의 오랜 친구 두 형제님, 그러니까 세 형제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을 자칭 폐인클럽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터라 그분들도 그 영향을 받아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호칭이지요.

그 세 형제님은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구분할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보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저를 만나는 순간부터 호구조사를 열심히 하던 분도형제님은 자리를 뜨면서 저에게 전화번호를 남기며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형제님이 도움을 청해 올 때면 제 힘이 닿는 데로 돕게 되면서 세 형제님과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님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사생

화에 대한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형제님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사는지 몰랐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형제님들은 신체가 열이라면 아홉에 해당한다는 눈을 못 보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뜬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살며, 자신들보다 더 심한 장애인들을 돌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제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앞을 못 보시는 형제님들이 하고 계셨기에 저는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던 지난 7월, 여름이 되어 짧은 옷을 입게 되면서 분도형제님의 팔에 제법 큰 종기가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다시 본 형제님의 팔에 여전히 그 종기가 그대로 있어서 만져 보니 딱딱한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피부과에 가게 되었는데 의사선생님이 보시고 근처 큰 병원에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전 그것이 그렇게 몹쓸 큰 병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를 듣는 순간, 암으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 오래 전에 하늘나라로 간 친구생각이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 의학이 많이 발전했을 테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결정하고 처음 시작할 때만해도 자신 있어 보이던 형제님이 치료가 거듭 될수록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죽음으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형제님을 지켜보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뿐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형제님 부인과 함께 형제님이 부르면 곧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바깥에 보이는 풍경을 얘기 해주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분도형제님은 박식하면서도 매우 학구적인분이어서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녹음된 도서를 읽기 위해 조그만 카세트와 테이프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늘 책을 읽는 분이셨습니다. 현대 항암주사를 맞는 시간에도 책을 읽으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통증으로 인해 책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분신처럼 끼고 다니시던 카세트를 책상에 내려놓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음악만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따뜻해지면 정신이 흐려진다고 집에 불도 넣지 못하게 하고 누우면 정신이 어지러워진다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의자에 앉아 컴퓨터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까지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형제님을 지켜보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라일락나무에 단풍이 든 나뭇잎 몇 개가 남아 가지에 간신히 매달린 채,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면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듯 보이는 것이, 꼭 형제님 모습 같아 가슴이 아려 왔습니다.

분도형제님은 어려서 시력을 잃어 병신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고 무척이나 많이 맞아서 철이 들기 전에는 눈 보는 사람은 모두 다 원수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분이어서 농담을 잘해 저 같으면 미워했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족보다 장애인들을 더 걱정하고 사랑 했습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고, 하고 싶은 공부를 제때 못했어도, '장님. 제수 없다'고 식당에서 쫓겨나고 차를 태워 주지 않아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헤매어도 죽을 생각을 한 번

도 해 본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삶에 애착이 많았던 형제님은 긍정적인 성품대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하느님은 분도형제님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 저에게 죽음이라는 두려운 명제가 남아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저는 영원히 알지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다만 나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다가오는 죽음 바로 앞에서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듯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나의 저 세상의 삶도 희망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품위 있게 준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의지대로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 할 수 있고, 먹고 뉘치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릴뿐입니다.

분도형제님을 기도 중에 만나기를 바라며, 하늘 나라에서는 눈뜨시고 맘껏 다니시면서 그 많은 호기심,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궁금한 것, 다 충족하기를 바랍니다.(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지도...) 그리고 먼저가신 선배로서 가기만 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갔다고 소문이 나게 할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구요.

환자를 돌보는 일, 더구나 임종이 가까운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환자를 돌보시는 가족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힘내세요. 남겨진 가족여러분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른 나뭇가지 같은 몸으로 죽어가는 이들과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호스피스 수녀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무척 많이 고맙습니다. 제가 수녀님들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하늘나라에 따라갈까 생각하고 있으니 제가 잡은 치마 벗어 버리고 가시겠다고 하시지는 말아주세요.^^